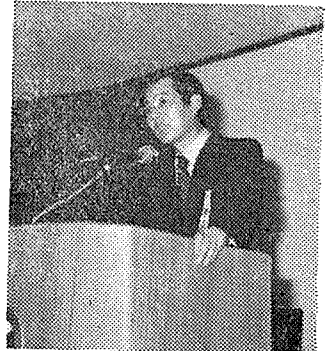


# 知識보다 智慧가 必要한 때

## 自主國防 技術開發 負擔加重

### 기능력의 조직화로 고도산업 달성



國會議員 白 永 勳

總和를 다짐하는 이 時間 몇가지 實感있는 例를 들어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저는 最近에 中東地域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建設에 參與하고 있는 우리나라 勤勞者가 約십만명이 됩니다. 現地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란”에 가면 1,000명에 가까운 정비공들이 이란 공병대에서 일하고 있고, 또한 2,000명에 가까운 운전수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스페인”서부터 추력을 몰고 12個國을 거쳐 한달 걸려 「이란」에 돌아옵니다. 가족을 두고 저 먼 땅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오로지 『祖國이여 잘해다오. 우리는 반드시 世界를 향해서 뻗어갈때니 조국에 있는 여러분들여』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카이로에 가서 큰 호텔을 짓고 있는 한국기술자를 보았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우리의 젊은 기술자가 이천백만불 짜리 큰 호텔을 계약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건축도중 불행하게도 機資材를 싣고 오던 배가 대만에서 화재가 나서 부득이 3개월을 延期시켜야겠는데 그 공사를 맡긴 「쿠웨이트」 사람은 연기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天災地變에도 불구하고 그 契約을 取消하려고 합니다. 젊은 30대. 대학을 갓 나온 學士들서른명이 일주일의 잠을 안 자고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우

리의 진실한 마음을 돌아주십시오』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쿠웨이트에서 공사를 맡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화재가 발생한 소식을 신문에서 보고 실지 목격을 하고 그 工期를 3개월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음날 저희들 國會議員 一行이 그 곳을 찾아가했습니다. 저희들을 보고 그들은 대한민국만세를 부르면서 조국의 국호를 외칠때, 조국이 이토록 기록하다는 感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또 鑛山村을 찾아가했습니다. 西獨「루르」지대에 있는 鑛山에서 地下 2,000m를 오르내리는 우리의 鑛夫들을 보았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地下 2,000m를 내려가는 鑛夫는 없습니다. 저 멀리 처자를 두고 이국의 땅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工業團地의 勤勞者들과 全國에 있는 機械工業高等學校를 찾아 보았습니다. 14歲로 18歲까지의 靑少年들이 불우한 가정을 떠나 가정을 위해 발버둥치며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조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출 200억불이 내년이면 달성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世界를 향한 韓國의 座標가 어떠한 基本的인 哲學과 어떠한 基本的인 座標위에서 내일의 자라나는 새로운 世代를 위해서 이 조국을 引繼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자라나는 한국속에서 과연 어떠한 指標가 그들의 將來를 위해서 어떻게 다스려져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自主國防은 負擔입니다. 엄청난 負擔입니다. 技術開發은 새로운 負擔과 막대한 投資가 필요합니다. 重化學工業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負擔과 막대한 投資가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國民은 經濟發展과 더불어 社會的 負擔이 加重됩니다. 勤勞者에 대한 福祉向上 등 수많은 費用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約 60만의 새로운 勞動力이 새로운 職場을 찾고 있습니다. 또 物價가 매년 10~15%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狀況下에서 한국 경제의 세가지 制限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雇傭문제요 또 하나는 物價,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原資材의 饑饉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협소한 국토속에서 大望의 80年代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轉換年代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知識보다 知慧의 必要性입니다. 이 엄청난 國力을 어떠한 방법으로 80年代까지 끌고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轉換年代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知慧. 새로운 頭腦의 組織입니다.

여러 科學者시여!

科學은 과학자 한 사람이 잘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科學이 組織化하고 그것이 내일의 產業社會를 위해서 總和의 길을 마련할 수 있는지 우리 정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頭腦產業을 開發하기 위해서 수 많은 投資를 하려하고 있으며, 10대 戰略研究所를 개발하는 등 막대한 投資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방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民間分野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이 科學者가 우리 產業에 적극 참여해서 韓國風土에 알맞는 科學總和의 길을 이제부터라도 찾아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억만리 떨어져 고생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영원히 품팔이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plant수출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 기틀을 마련하고 그 과제를 연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기능과 조직력을 다시 한번 再集合시켜서 그들의 피땀흘려 고생해서 얻은 그 成果가 반드시 내일의 고도한 산업사회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自主國防과 自立經濟 기틀이 반드시 先進國隊列에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先進國은 그들의 대열에 끼는 것을 猜忌하고 있습니다. 輸入을 規制하고 保護關稅를 하고 輸出을 妨害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내일 우리 한국이 고도상으로 가느냐 못가느냐하는 이자리에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타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科學者들과 저희 입법부에 몸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할 중대과제입니다.

모처럼 이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관심사는 우리 國力을 어떠한 方法으로 어떻게 組織해서 내일의 科學韓國을 設計해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我執을 갖고 서로 다들게 아니라 새로운 次元을 찾아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使命입니다.

우리들은 創意 誠實 正直 清廉 勤儉 및 奉仕를  
生活信條로 하는 科學技術者像을 定立한다